

3월8일(월)/사도행전12:25

**제목: 승리의 발걸음**

헤롯의 박해와 죽음을 언급하다가 다시 사도행전 11장30절의 예루살렘 교회의 기근과 구제헌금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다. 바나바와 사울은 예루살렘에 구제헌금을 전달하고 본 교회인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다(25절) 돌아올 때 마가라는 요한을 함께 데리고 왔다. 마가는 사도들이 거할 수 있도록 집을 제공했던 마리아의 아들이다(12:12). 마가가 이들과 왜 합류하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아마 바나바와 사울에 의해서 선교사 지망생으로 오랫동안 준비되어져 온 사람 같다. 헤롯의 박해가 실패로 끝난 뒤에 예루살렘을 떠나 본 교회로 돌아오는 사람은 누구인가? 바나바와 사울과 마가였다. 헤롯은 죽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났으며 교회는 수많은 주의 사람들로 불졌다. 여기에 모든 환란을 뚫고 나와 승리한 기쁜 발걸음들이 안디옥을 향하여 당당히 걷고 있다. 왕과 유대인과 감옥이라는 모든 적대 세력을 뚫고 그들은 당당히 안디옥을 향해서 걷고 있다. 이 세상을 마감하고 술한 믿음의 전투에서 승리한 우리들의 발걸음도 장차 이와 같을 것이다. 환란이 파도처럼 덮쳐어도 끝까지 싸워 그것을 뚫고 나온 우리들의 발걸음도 장차 천성을 향해서 그렇게 걸어 갈 것이다.

3월9일(화)/사도행전13:1~3

**제목: 성직자는 성령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금식하며 예배드리고 있는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에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명했다(2절). 이 말은 특수한 사역을 위해서 구분하라는 뜻이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위해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한 뒤 하나님의 지시하신 대로 파송하였다(3절). 이로써 바나바와 사울의 제1차 전도여행이 시작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엄격히 말하자면 교회가 그들을 파송한 것은 아니다. 교회가 한 일은 무엇인가? 그들을 안수하고 보냈다.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의 파송에 필요한 것들을 갖추어 줌으로 그들이 자유롭게 가도록 해주었을 뿐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했다는 말은 옳은 말이 아니다. 파송하지는 이는 오직 한분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은 어떤 이들은 안디옥 교회에 머물러있게 하고 어떤 이는 교회를 떠나게 했다. 성령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누구도 그의 일을 하러 떠날 수 없다. 선교사나 목회자는 교회의 회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성령님의 부름을 받지 않는 자는 성직의 일을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성직자 중에도 왜 가라지와 같은 존재들이 있는가? 그것은 부름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부름 받은 자가 스스로 잘못된 경우이다.

3월10일(수)/사도행전13:4~12

**제목: 심령치료를 조심해야 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첫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다. 그들이 구브로의 여러 지역을 순회할 때 바보라는 지역에서 박수, 즉 무당 바예수라는 사람을 만났다. 그는 구브로를 관장하고 있던 로마 총독에 속해있는 사람이었다. 하루는 이 총독이 복음에 관심을 갖고 바울과 바나바를 청하였을 때 무당은 총독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방해하였다. 이 때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무당을 저주하니 그는 소경이 되어버렸다(4~11절). 바울은 그 무당을 ‘마귀의 자식’ 이라고 했다(10절). 그는 신비한 능력을 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복음과 아무 상관없는 마귀의 자식이었던 것이다. 바예수와 같이 신비한 능력을 가진 자들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많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종교의 이름으로 신비한 초자연적인 세계와 접촉하고 교통하는 것은 늘 인간의 호심을 끌기 마련이지만 이것은 기독교를 위협하는 것이다. 그들은 마귀의 자식들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와는 상관없는 초자연주의는 마귀의 사역이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마술과 온갖 형태의 심령치료를 주의해야 한다. 인간은 예수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어야 한다. 그러면 모든 심령의 문제가 해결된다.

3월11일(목)/사도행전13:13~15

**제목: 바울의 패기**

바울의 1차전도 여행 중에 밤빌리아에서 이탈자가 생겼다.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13절)에서 요한은 마가를 가리킨다. 그가 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바울을 그를 상당히 오랫동안 용서할 수 없었다(행15:38) 그리고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14절). 비시디아 안디옥은 고지대이며 그곳으로 가는 길이 가장 험한 길로 정평이 나있었다. 바울은 왜 힘들고 위험한 길로 떠났을까? 특히 당시 바울은 병든 상태였다. 바울이 당시를 회상하면서 썼던 편지 속에 그런 내용이 있다(갈4:13). 바울은 극심하게 건강이 악화된 상태에서 가장 험한 길을 통해서 해발1000m가 넘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 그리고 유대교의 상징인 회당 집회에 참석하여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낭독하고 자기와 강론할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당당히 도전하였다(15절).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패기를 볼 수 있다. 바울은 병이 들었지만 그 병이 바울의 복음의 열정을 되돌리게 할 수 없었다. 그 산길을 거쳐 그 무시무시한 여행을 감행한 사람은 병자였다. 우리는 조금만 기침을 해도 교회 예배나 모임에 참석하지 핑계를 대지 않는가?

3월12일(금)/사도행전13:16~41

**제목: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행한 설교는 주로 역사적인 개관이 있었다. 바울은 먼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언급하되 그것을 출애굽 사건에서부터 시작하였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광야로 들어 간 사실과 약속의 땅에서의 삶과 다윗 때까지의 역사를 언급하였다(17~22절). 그러나 솔로몬에서 말라기까지의 역사는 생략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씨에서 나온 예수를 언급하였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고 하였다(23~37절).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순간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순간이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 (39절)라는 말이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하나의 새로운 용어가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 라는 말은 ‘죄 사함’ 이라는 말보다 더 깊은 말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 사함을 받을 뿐 아니라 의롭게 된다. 의로운 행동이나 활약을 하지 않아도 믿으면 의롭게 된다. 이것은 값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칭의’ 이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매일 매일 공로 없이 ‘의인’ 으로 살아가고 있다.



## 직장 · 가정 예배 모범문



작성자 : 박유신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제일교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2동 647-2(중앙동 7단지 뒤)  
Tel.(031)485-0955~7 Fax.(031)401-2370